

한미 FTA시대 위기의 전남농업

4 대비없는 지자체

UR 이후 14년 허송세월

(우루과이 리운드)

농촌붕괴 지켜만 볼 건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되면서 전남 농업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축산농가에서 시작된 전남산 농·축산물의 판매 및 생산 감소가 농가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이에 따른 도시와 농촌의 격차 확대, 그리고 결과적으로 농촌이 붕괴하는 암울한 시나리오가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그러나 FTA의 직격탄을 맞게 될 전남지역 농가들은 대다수가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다가오는 파국을 망연히 바라다보고만 있는 실정이다. 전남도 역시 '피해를 보는 농가에 대한 정부지원'을 건의하고, 농·축산물 품목별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FTA의 개선 파도를 헤쳐나갈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농가소득안정 특별법 등 건의

전남도는 최근 발표한 '한미FTA 대책'을 통해 ▲FTA로 이익을 보는 산업에서 재원을 확보, 피해를 보는 농업부문에 투자하도록 하는 '농가소득안정특별법' 제정 ▲농도 전남에 대한 농업예산 차등지원 등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가장 민감한 부문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한우산업 종합대책'을 이날 중 마련키로 했으며 보리와 감자, 고추, 마늘, 배, 사과, 돼지, 닭, 오리 등 FTA로 영향을 받게 될 전남도 내 41개 주요 생산품목에 대한 경쟁력 제고 대책도 이날 중 마련키로 했다.

민선 3기 후반기부터 농업·농촌 활력을 위해 추진해오던 5개년 계획, 친환경 축산 5개년 계획, 농산물 가공산업육성 5개년 계획, 농산물 유통혁신 5개년 계획 등도 계속해나가는 방침도 밝혔다.

전남도는 이와 함께 지난해 한미FTA협상 개시 당시 교수와 공무원, 농·축산물 생산자 대표 등 69명으로 구성된 특별대책팀(T/P)을 본격 가동해 피해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박준영 도지사도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소극적인 대책으로 일관할 경우 파국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실·국별 FTA관련 보고회'를 정례화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한 비상체제에 돌입하도록 했다.

이 같은 대응은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로부터 뒤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한 '농가소득안정특별법' 제정을 비롯 정부에 건의해 온 각종 정책과제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우루과이 협상 타결 이후 1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역 농가가 '수입개방'에 대처할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것은 결국 지자체의 농업정책이 부실했던 때문이라는 얘기다.

실제로 지난 1993년 12월 '전남 농업이 세계 자유무역의 물결에 편입되는' 우루과이 협상 타결 이후 정부가 전국 농가에 쏟아부은 50조 원대의 막대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전남지역 농가의 부채는 오히려 4배 이상 급증했다는 점은 전남지역 지자체가 농업개방 시대에 효율적으로 대비하지 못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우루과이리운드와 한·칠레FTA타결 등을 거치면서 농산물 수입개방시대에 철저히 대비해야 했음에도, 일부 친환경 농업부문을 제외하면 대다수 농업분야에서 납득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경쟁력 높일 정책적 수단 모색해야

개발 농가지도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세계적인 농산물 수입자유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농업구조를 수입 자유화시대에 맞춰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조창환 연구원은 "농업부문의 경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많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지만, 수입개방에 대한 준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오지 못한 것은 분명 문제"라며 "앞으로는 가격보다는 품질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적 수단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한미정상회담, 6자회담 따라 추진”

윤승용 청와대 대변인

청와대 대변인인 윤승용 홍보수석은 5일 한미정상회담 추진 문제와 관련, “정상회담은 만약 하게 되더라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와는 무관

하며, 한미 FTA를 위한 정상회담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수석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한미정상회담 추진 문제에 대한 청와대의 공식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변하면서 “한미정상회담은 6

자회담 진행상황과 결과를 보면서 필요하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한미 FTA 협정 서명 여부와 관련, 윤 수석은 “대통령이 서명할 의무도 없고 선례도 없다”며 “이는 한미 FTA를 가결해 주시기 때문이 아니며, 어려움이 처할 것으로 보이는 국민들을 챙기는 문제가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뼈 쇠고기’ 개방 시기 신경전

재정부 “신속 수입” 농림부 “신중 수입” 갈등 美 “개방 안되면 FTA 협정 서명 거부” 압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일단락된 것처럼 보였던 ‘뼈 있는 쇠고기’ 개방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이 ‘합리적 절차와 기간’을 거쳐 개방하겠다고 구두 약속한 만큼 오는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의 광우병 위험 등급을 확정하면 ‘뜸 들이지 않고’ 8단계의 자체 위험평가 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거듭 밝히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아예 쇠고기 전면 개방과 FTA 협정 서명을 연계시키겠다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으며 사실상 5월 관저 직후 문을 활짝 열 것을 요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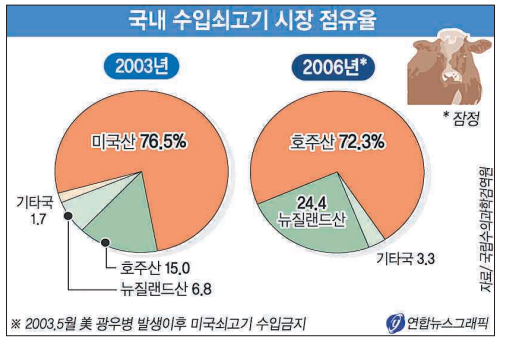
한미FTA 농업분과장을 맡았던 배종우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장은 5일 ‘쇠고기 개방 시기’와 관련, “쇠고기 광우병(BSE)과 관련된 검역, 수입위생조건 절차에 대해 미국에 시한 등을 약속한 것은 없다”며 농림부의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



김중훈 수석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통상신당모임 한미FTA 협상결과보고회에서 개성공단과 역외가 공지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4일 오후 미국 무역대표부에서 키란 바티아 USTR 부대표가 최근 타결한 한미 FTA타결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홍수 농림부 장관 역시 전남 국회 농해수위에 출석, OIE의 권고를 존중해 합리적인 수준과 기간안에 개방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노 대통령의 말이 장관 자신이 그동안 밝혀온 “5월 OIE 결론이 나온 뒤 과학적 절차를 밟아 처리하겠다”는 입장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같은 정부안에서도 재정부의 상당히 서두르는 입장이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부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쇠고기 수입검역문제는 OIE의 최종 결과가 5월20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발표되는 대로 수입검역과 관련된 절차를 신속하게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그동안 많은 자료 축적이 있었고 서로 논의가 진행됐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OIE의 미국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등급판정이 나오는 즉시 신속히 수입절차를 밟아 미국의 요구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손 스페이스서 미 무역대표부(USTR) 대변인은 4일(미국 시각) USTR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쇠고기에 대한 명백한 통로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협정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날 카란 바티아 USTR 부대표도 “광우병 문제가 FTA 협상을 밖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노무현 대통령도 국제적인 기준을 존중하겠다고 시사한 바 있다”며 “한국이 쇠고기 시장을 완전히 재개방하기 않으면 의회에서 비준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한국측에 통보했다”고 우리측을 압박했다.

미국 의회가 쇠고기 문제를 비준 동의와 연계시키는 것은 ‘정치적 압박’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협정 타결 당사자인 USTR측이 쇠고기 전면 개방이 협정 사안의 전제 조건이라고까지 말한 것은 노 대통령의 ‘합리적 개방’에 대한 양국의 해석 차이가 드러난 것이라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연합뉴스

“3대 신용평가사, FTA로 한국 신용등급 긍정 평가”

권부총리 “협정문 내달중 공개”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5일 “한미FTA 협정문의 문안 확정 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 전체 텍스트를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또 3대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한미FTA 타결이 우리나라의 신용등급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날 낮 과천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협정문 공개시기와 관련해 “현재 문안을 확정짓는 작업이 진행중인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관련 과정을 거쳐서 5월 중에는 전체 텍스트(전문)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산 쇠고기수입 절차에 대해 “그동안

자료가 축적돼왔고 많은 논의가 있었으므로 오는 5월20일 국제수역사무국(OIE)이 결과를 발표하면 수입검역과 관련된 절차를 신속하게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개성공단을 둘러싼 양국간 해석차에 대해 “부속서(Annex)에 따르면 양국은 ‘한반도역외가 공지역위원회’ 설치에 합의함으로써 한반도의 비핵화 진전 등 일정요건 하에 역외공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면서 “개성공단을 직접적으로 특정할 것은 아니나 이를 당연히 주 대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주)조이트래블

www.joy-travel.net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 5가 57번지 2F
대표전화 (062) 234-3222

기억에 오래도록 간직될 가슴 설레이는 여행...
매년 1만명 이상의 고객들께서 조이트래블을 통해 여행을 다녀오십니다.

해외여행 보충보험 5억원 가입업체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Best of best !!

국내 최저가 일본 규슈 온천 3박4일

■ 전일정 노담! 노음선! 279,000
 ▶ 출발일: 5월 13일
 ▶ 숙박: 야마나기 통나무 콘도

날짜	장소	교통	시간	일정	식사
출발	광주	전통버스	12:30	광주역 앞 집결(12:30) / 출발 후 부산 이동	휴게식
1박 2일	부 산	카펠라	18:00	부산 국제 여객선 터미널 도착 후 출국 수속	휴게식
3박 4일	후쿠오카	전통버스	08:00	후쿠오카 / 후쿠오카 항만	선내식
4박 5일	구마모토	전통버스	08:00	후쿠오카 / 후쿠오카 항만	선내식
6박 7일	구마모토	전통버스	08:00	구마모토로 이동 후 후쿠오카 이동	선내식
7박 8일	구마모토	전통버스	08:00	구마모토로 이동 후 후쿠오카 이동	선내식
9박 10일	구마모토	전통버스	08:00	구마모토로 이동 후 후쿠오카 이동	선내식
11박 12일	구마모토	전통버스	08:00	구마모토로 이동 후 후쿠오카 이동	선내식
13박 14일	구마모토	전통버스	08:00	구마모토로 이동 후 후쿠오카 이동	선내식
15박 16일	구마모토	전통버스	08:00	구마모토로 이동 후 후쿠오카 이동	선내식
17박 18일	구마모토	전통버스	08:00	구마모토로 이동 후 후쿠오카 이동	선내식
19박 20일	구마모토	전통버스	08:00	구마모토로 이동 후 후쿠오카 이동	선내식
21박 22일	구마모토	전통버스	08:00	구마모토로 이동 후 후쿠오카 이동	선내식

일본

추천상품 1
통나무 콘도와 일본 전통 온천호텔과의 만남 4일 319,000
 ▶ 출발일: 4월 20, 24일/5월 11, 25일
 ▶ 숙박: 빌라형 통나무 콘도+벚꽃전통온천호텔
 ▶ 전일정 노담! 노음선! / 광주 출도착 기준
 ▶ 여행자보험 1억원 가입 / 숙박세 및 기타 부대비용 포함

추천상품 2
일본 전통 온천호텔을 체력하는 절호의 찬스!! 4일 349,000
 ▶ 출발일: 5월 13일
 ▶ 숙박: 온천호텔 또는 특급호텔
 ▶ 전일정 노담! 노음선! / 광주 출도착 기준
 ▶ 여행자보험 1억원 가입 / 숙박세 및 기타 부대비용 포함

추천상품 3
팬스타와 함께하는 오사카/나라/교토 5일 469,000
 ▶ 출발일: 5월 9, 16일
 ▶ 숙박: 특급온천호텔 또는 특급호텔

추천상품 4
‘동화 속 느낌, 튜올림과 함께’ 하우스텐보스 + 아사팜 4일 449,000
 ▶ 출발일: 5월 13일
 ▶ 숙박: 닛코호텔+아사팜

유럽

특가상품 1
전통풍경(디럭스) 서유럽 6개국 KE 12일 3,540,000
 ▶ 4월 16일
 ▶ 숙박: 빌라형 통나무 콘도+벚꽃전통온천호텔
 ▶ 전일정 노담! 노음선! / 광주 출도착 기준

특가상품 2
풍경상품(1급) 서유럽 6개국 OZ 12일 3,100,000
 ▶ 5월 17일
 ▶ 숙박: 빌라형 통나무 콘도+벚꽃전통온천호텔
 ▶ 전일정 노담! 노음선! / 광주 출도착 기준

특가상품 3
풍경상품(1급) 서유럽 6개국 CX 12일 2,220,000
 ▶ 4월 21일
 ▶ 숙박: 빌라형 통나무 콘도+벚꽃전통온천호텔
 ▶ 전일정 노담! 노음선! / 광주 출도착 기준

특가상품 4
풍경상품(1급) 그리스/터키 KE 9일 2,750,000
 ▶ 4월 20일
 ▶ 숙박: 빌라형 통나무 콘도+벚꽃전통온천호텔

남태평양

특가상품 1
호주/뉴질랜드 남북섬 (특급호텔) KE 10일 1,990,000
 ▶ 4월 17일
 ▶ 숙박: 빌라형 통나무 콘도+벚꽃전통온천호텔
 ▶ 전일정 노담! 노음선! / 광주 출도착 기준

특가상품 2
호주/뉴질랜드 남북섬 (특급호텔) OZ 10일 1,890,000
 ▶ 4월 19일
 ▶ 숙박: 빌라형 통나무 콘도+벚꽃전통온천호텔
 ▶ 전일정 노담! 노음선! / 광주 출도착 기준

등남아

특가상품 1
베트남/캄보디아(특급/1급) VN 6일 890,000
 ▶ 4월 21, 24, 27, 30일
 ▶ 숙박: 빌라형 통나무 콘도+벚꽃전통온천호텔

제주도

특가상품 1 (제주출발)
상해/소주/항주/주자간 KE 3일 399,000
 ▶ 4월 18, 25일 / 5월 2, 16, 30일
 ▶ 숙박: 빌라형 통나무 콘도+벚꽃전통온천호텔
 ▶ 전일정 노담! 노음선! / 광주 출도착 기준

특가상품 2 (제주출발)
상해/항주/장가계(원가계) KE 5일 859,000
 ▶ 5월 16, 19일
 ▶ 숙박: 빌라형 통나무 콘도+벚꽃전통온천호텔
 ▶ 전일정 노담! 노음선! / 광주 출도착 기준

특가상품 3 (부산출발)
북경/민리장성 299,000
 ▶ 4월 13일
 ▶ 숙박: 빌라형 통나무 콘도+벚꽃전통온천호텔
 ▶ 전일정 노담! 노음선! / 광주 출도착 기준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고시를 철저히 준수합니다.

◆ 9인원 여행보충보험 가입 / 여행객에 가입업체 ◆ 공통조건: 여행 경비 1인 기준, 여행지별 가입대상(1인당) 국내산 5천원, 해외산 10천원, 관광진흥법 1인당 100원, 공과 및 부대비용, 유류할증료 포함

◆ 교통편: 항공 및 선박, 전용버스 / 전차 ◆ 경비: 항공 (단, 개인적인 단, 선택관광, 각종 비자비용 별도) ◆ 최소출발인원 15명 이상

◆ 상(하)대: 항공 및 해상 운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예약시 계약서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십시오.

어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트래블